광양 '명문교육도시' 만들기 가속화

교육지원조례 제정 7년…올 예산 40억원 투입

21개 시책 추진·다양한 대안 적극 발굴 나서

광양시가 명문 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올해 과감한 투자에 나선다.

23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전국 최초로 '교육환경 개선지원조례'를 제정한지 7년차를 맞아 4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재육성, 학력신장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이에 따라 올해 21개에 달하는 새로운 교육시책을 차별적으로 시행해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학교발전과 도시발전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인재육성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고등학교에는 논술아카데미 운영, 성적우수학생 장학금 및 기숙사비 지원, 전국 수능 모의고사비 지원, 원어민교사 운영, 우수학생 보충수업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10억800만원을 투자한다.

중학교에는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 교사 사업비 지원, 우수중학생 관내고교 유치 등 5개 사업에 2억8천700만원이 투입된다. 초등학교에도 원어민 교사 사업비를 비롯해 광양영재교육원 운영 등 4개 사업에 4억5천800만원이 지원된다. 이밖에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어 사이버 학습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23억2천만원을 투자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과후 맞춤형 우수학습반 운영, 전직원 대상 새로운 교육시책 공모, 특기 적성,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차별화된 대안을 적극 발굴해 명문교육도시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2002년 이후 400억여원을 투자, 명문대 진학률을 크게 높이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올해에만 수시 합격자로 서울대 7명, 고대 2명, 연대 7명 등 3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고 정시 합격자도 서울대 14명, 고대 34명, 연대 24명 등 97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성적 10% 이내 우수중학생의 관내 진학비율이 지난해 64.3%(155명)에 비해 7.7% 증가한 72%(176명)로 높아졌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친환경 웰빙식품 '땅두릅' 뜬다

장성군, 떡국 등 가공식품 개발 시식회 '호평'

장성군이 새로운 소득식품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땅두릅 가공식품이 친환경 웰빙식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23일 군에 따르면 최근 땅두릅 분말 떡국을 개발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농업 특성화 기술교육생을 대상에게 중식으로 시식회를 실시, 맛과 상품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말했다.

맛을 평가하는 질문에 맛있다는 의견이 90%이고 상품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성공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89%에 달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열린 백양단풍축제 때도 땅두릅 절임식품을 비롯해 땅두릅 분말을 이용한 빵·쿠키·국수·냉동식품 등 30여종의 가공식품을 선보여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장성군은 올해 땅두릅 메뉴를 개발, 홍보식당 1개소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와 MOU를 체결, 땅두릅 수제비 등을 특화품목으로 육성해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땅두릅은 사포닌과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 항암효과가 뛰어나고 무농약으로 재배되는 친환경제품으로 상품가치가 높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땅두릅 상품을 개발, 새로운 농가소득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성=류종선기자 yjs52@

'귀하신 몸' 서대 말리기 한창 23일 완도항 건조장에서 한 어민이 서대를 말리고 있다. 회무침이나 구이용으로 식탁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 서대는 4마리에 1만원에 팔린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담양 가사문학 DB화 탄력

2년 연속 '국가 지식과제' 선정

담양군이 가사문학 관련 자료를 온라인에 집대성하는 '한국 가사문학 DB 구축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23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공모한 '국가지식정보자원과제'에 지난해에 이어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국비 5억5천만원과 군비 9천만원을 들여 한국 가사문학관이 소장한 원본과 해제본 등 가사문학 관련자료 등을 DB로 구축하게 됐다.

군은 지난해부터 구축한 1차 결과물을 다음 달 인터넷 사이트(www.gasa.go.kr)를 통해 공개하고 2010년까지 21억원을 투자해 더욱 많은 양의 DB를 구축,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에도 국비 등 6억7천만원을 들여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가사문학 관련자료의 텍스트와 이미지, 동영상, 음성 DB 구축사업을 마쳤다.

군 관계자는 "송순의 '면앙정가', 정철의 '성산별곡', '사미인곡' 등 대표작품이 탄생한 가사문학의 산실로서 담양지역이 가진 문화 인프라를 체계화해 디지털 시대 민족문화 보존과 계승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정훈기자 cjob17@

/ 새 얼 굴 /

현장중심 無정전 활동에 최선

구 귀 남 한전 광양지점장

"36년동안의 경험과 지식으로 지점수익과 고객감동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구귀남(55) 한국전력 광양지점장은 "현장중심의 무(無)정전 및 고객만족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출신인 구 지점장은 명지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73년 한전에 입사, 경기지사 및 서울지역본부 영업부장, 경기북부 파주지점장 등을 지냈으며 섬세한 업무처리로 여성 최초로 부처장급(1급)으로 승진한 실력파이다.

가족으로는 남편 이각희씨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대한다원 장학회, 고교생 10명에 장학금

(재)대한다원 장학회(회장 장영섭)는 지난 20일 대한다원 강당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보성군내 7개 고등학교 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사진〉

대한다원 장학회는 지난 2004년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부족한 환경에서 대학진학 등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대한다원 장학회는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장학금 6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선상근기자 sun@

"사료값 45억 절감"

영광군 농기센터

영광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자'로 선정돼 2년 동안 사료비 절감 특성화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입 사료를 국내산으로 대체하고 영광군이 새로운 사료작물로 농가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청보리의 우량품종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올 한해 45억원 상당의 배합사료 구입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의 사료값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대학 학자금 대출 신청하세요" 전남농협 3월말까지 접수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원)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3월31일까지 모든 영업점에서 2009년도 1학기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을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하는 대학(원)생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양식을 작성,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연 7.30%(저소득층 자녀는 추후 소득수준에 따라 연 0~5.80%로 인하)이며, 대출기간은 최장 20년이다. 대출금액은 등록금 범위내로 생활비도 최고 1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이 기간 중 농협을 통해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60명에게 노트북, 농협GIFT카드,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등을 제공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영암군, 행정인턴 14명 등 일자리 창출 나서

영암군은 글로벌 경제난 및 국내실물경기 위축에 따라 고용불안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인턴제 시행 ▲공공근로사업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증대 등 각 분야별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행정인턴 대상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9세 이하 청년 취업준비생이다.

이를 위해 군은 1억5천만원 사업비를 투입해 공무원 정원의 2%인 14명을 채용한다. 신청은 군청 지역경제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28일까지로 받는다.

근무기간은 최대 10개월까지 가능하며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영암=박제신기자